

식품표시 활용에 대한 소비자인식 및 개선방안

조윤미 상임대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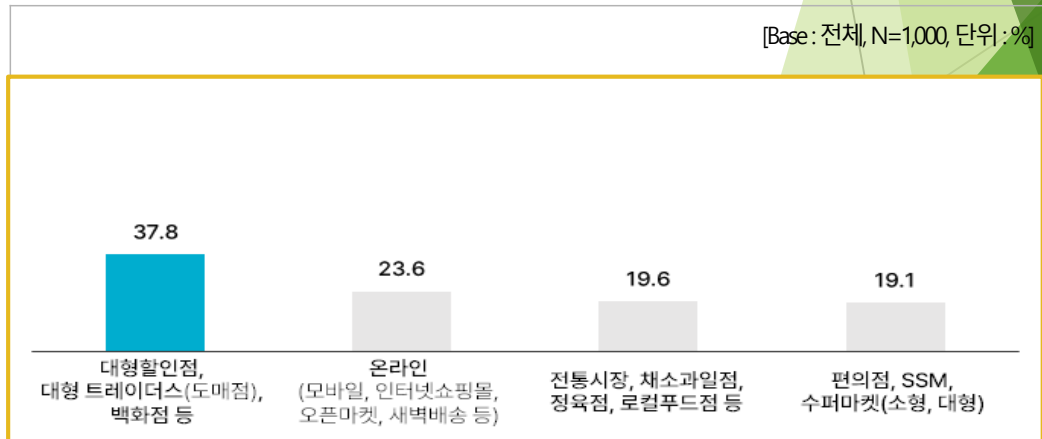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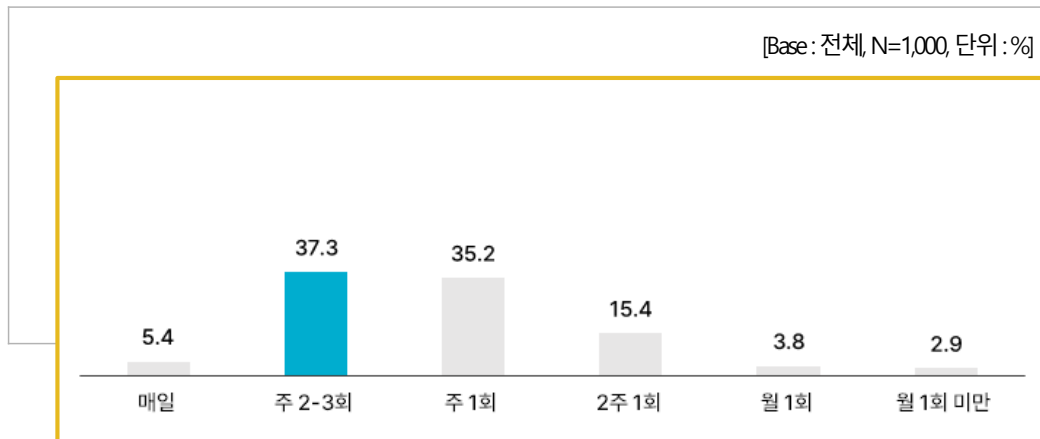
- ▶ 식품표시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 및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평가 내용을 수집 및 분석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경험 및 요구도를 조사하여 정책 입안에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 ▶ 조사대상은 일반국민으로 전국 1,000명이며, 표본오차는 1,000명 (±3.10%)임
- ▶ 조사기간은 2022년 7월 18일(월)부터 2022년 7월 30일(토)까지 13일간 진행. 온라인 조사로 실시함

▶ 조사대상자 일반현황

구 분		사례수	%
전 체		(1,000)	100.0
성별	남자	(509)	50.9
	여자	(491)	49.1
연령대	20대	(176)	17.6
	30대	(176)	17.6
	40대	(219)	21.9
	50대	(234)	23.4
	60대	(195)	19.5
직접조리 정도	대부분 조리(요리)	(555)	55.5
	요리(조리) 및 외식·배달 반반	(399)	39.9
	대부분 외식·배달	(46)	4.6

식품 구입처 및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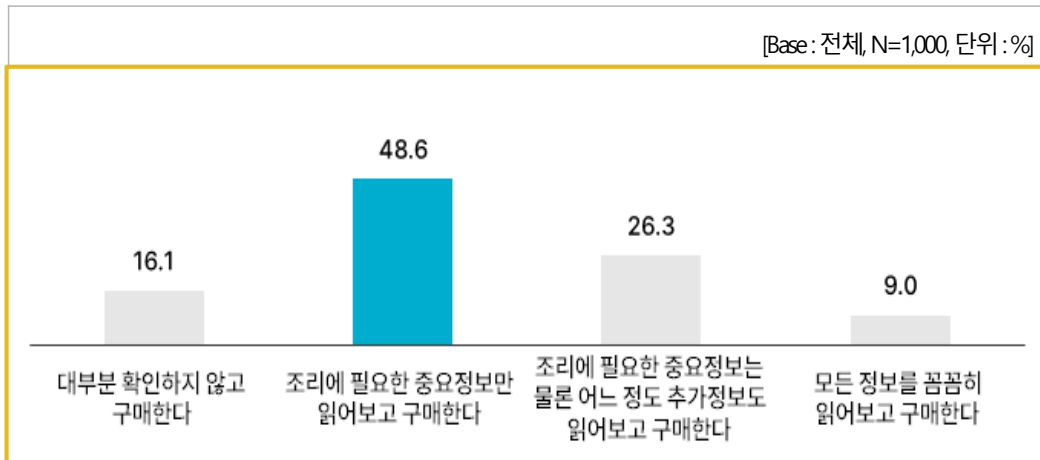
- ▶ 평소 식품(신선농산물 제외) 구입 주기는 ‘주 2-3회’ 가 3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 1회’ (35.2%), ‘2주 1회’ (15.4%) 등의 순임
- ▶ 식품 주요 구매처로는 ‘대형할인점, 대형트레이더스, 백화점 등’ 이 3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온라인’ (23.6%), ‘전통시장, 채소과일점, 정육점, 로컬푸드점 등’ (19.6%), ‘편의점, SSM, 슈퍼마켓’ (19.1%) 순임
- ▶ 평소 식품(신선농산물 외 가공식품) 구입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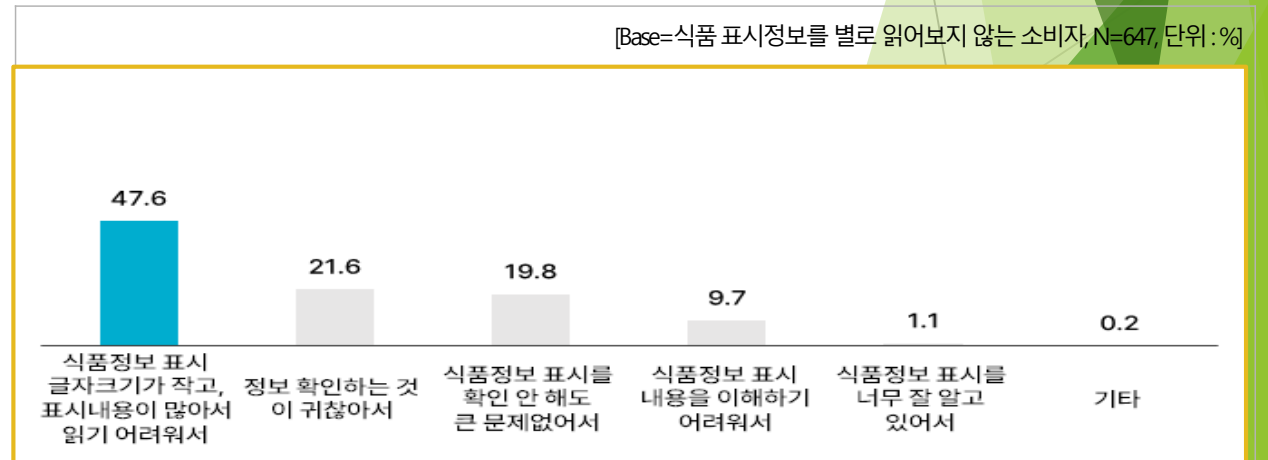
식품표시 활용정도

- ▶ 평소 식품 구매[선택] 시 식품표시 중 ‘조리에 필요한 중요정보만 읽어보고 구매한다’ 가 4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리에 필요한 중요정보는 물론 어느 정도 추가정보도 읽어보고 구매한다’ (26.3%), ‘대부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다’ (16.1%), ‘모든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고 구매한다’ (9.0%) 순임
- ▶ 식품 표시정보를 별로 읽어보지 않는 이유로 ‘식품정보 표시 글자크기가 작고, 표시내용이 많아서 읽기 어려워서’ 가 4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보 확인하는 것이 귀찮아서(21.6%),’ 식품정보 표시를 확인 안 해도 큰 문제없어서 (19.8%),’ 식품정보 표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9.7%) 등의 순임

▶ 평소 식품 구매[선택] 시 식품표시 정보 읽어보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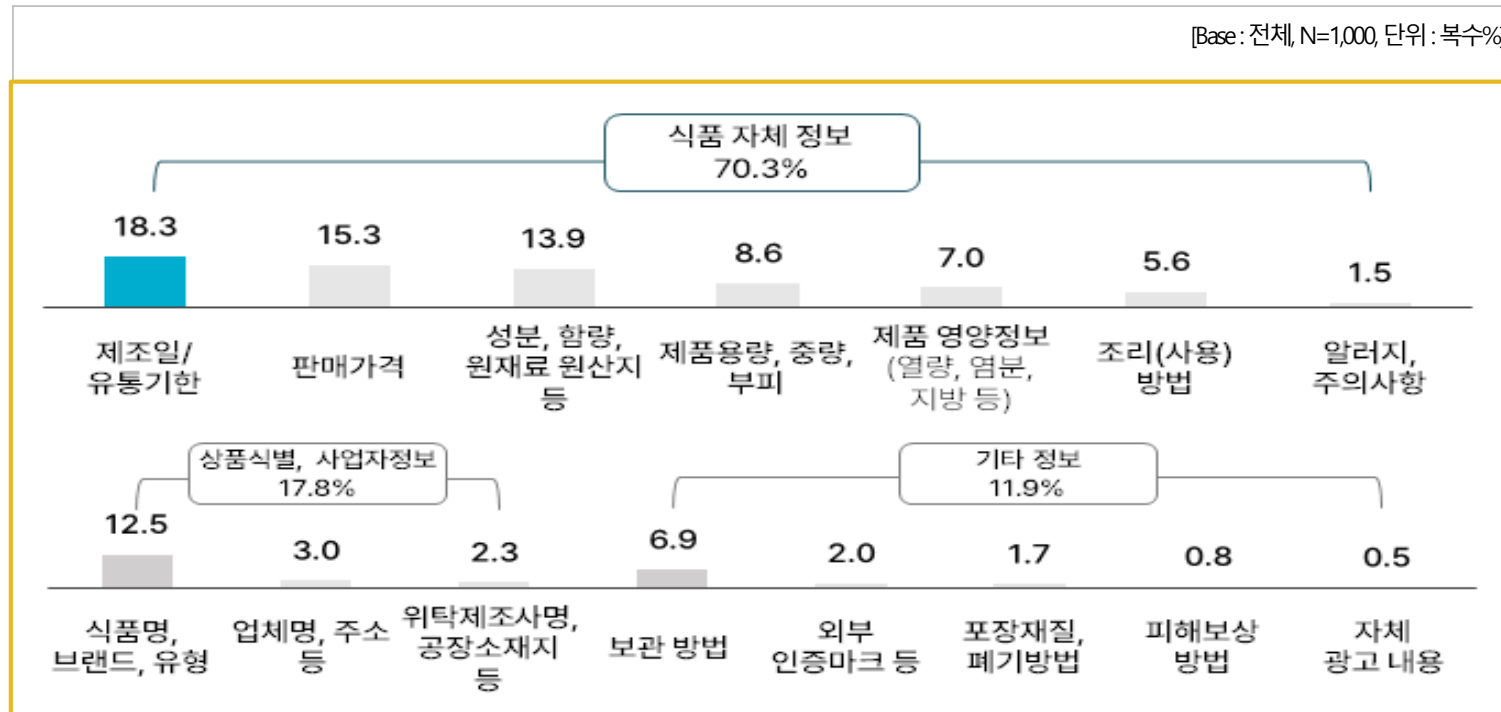


▶ 식품 선택[구매] 시 식품 표시정보를 별로 읽어보지 않는 이유



식품선택시 중요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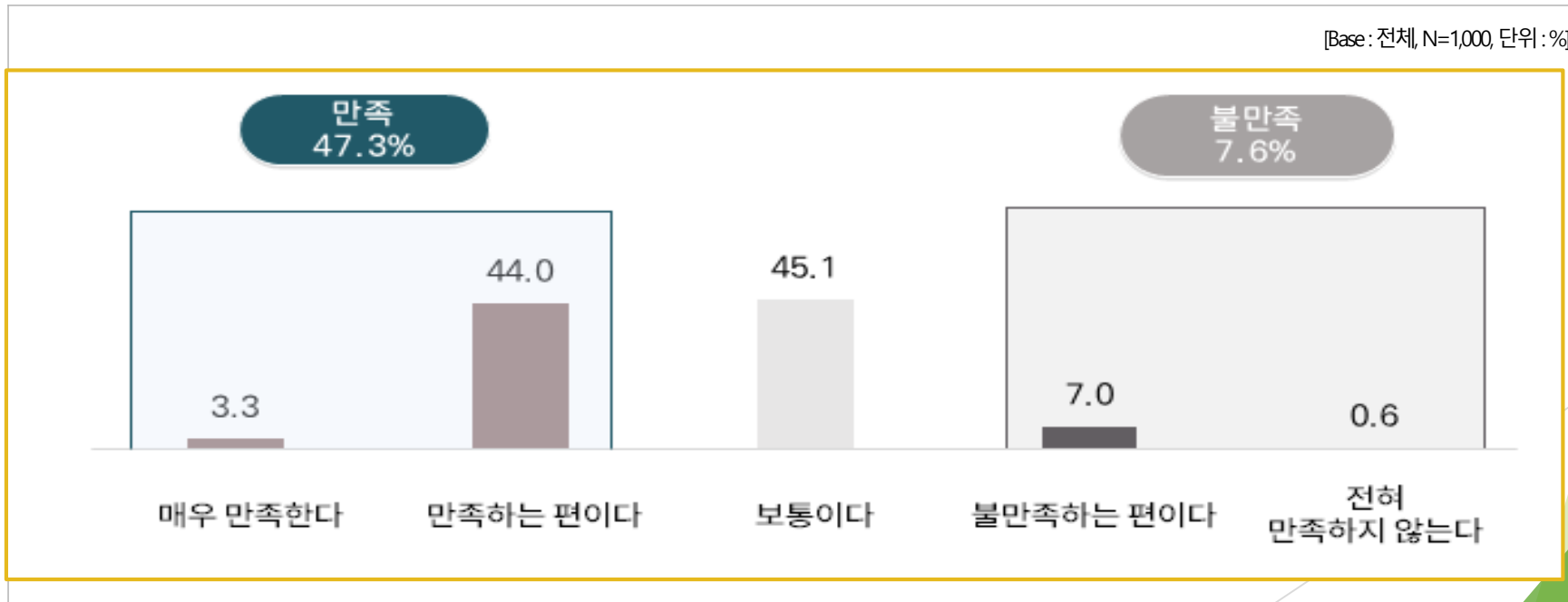
- ▶ 식품 선택[구매] 시 중요하게 확인하는 식품표시 정보는 ‘제조일/유통기한’ 이 1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판매가격’ (15.3%), ‘성분, 함량, 원재료 원산지 등’ (13.9%), ‘식품명, 브랜드, 유형’ (12.5%) 등의 순임
- ▶ 식품 선택[구매] 시 중요하게 확인하는 식품표시 정보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

- ▶ 현재의 식품표시 관련 사항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한다' 3.3% + '만족하는 편이다' 44.0%)이 47.3%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응답률이 45.1%로 나타남

- ▶ 현재의 식품표시 관련 사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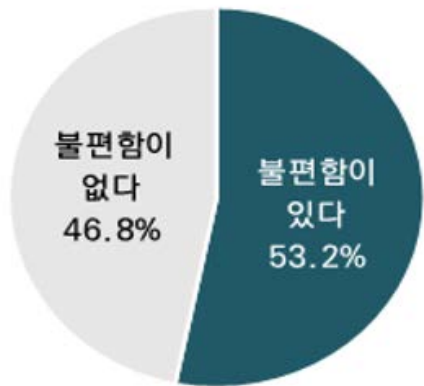


식품표시 활용시 불편함

- ▶ 식품 표시사항을 읽을 때 ‘불편함이 있다’ 는 응답이 53.2%로 과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함
- ▶ 식품 표시사항을 읽을 때 불편함을 느낀 이유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들다’ 가 3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표시내용이 너무 많아 복잡하다’ (24.6%), ‘표시내용이나 용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15.4%), ‘표시위치가 일관되지 않아 찾아보기 힘들다’ (12.7%) 등의 순임

▶ 식품 표시사항을 읽을 때 불편함을 느낀 경험

[Base: 전체, N=1,000, 단위: %]



▶ 불편함을 느낀 이유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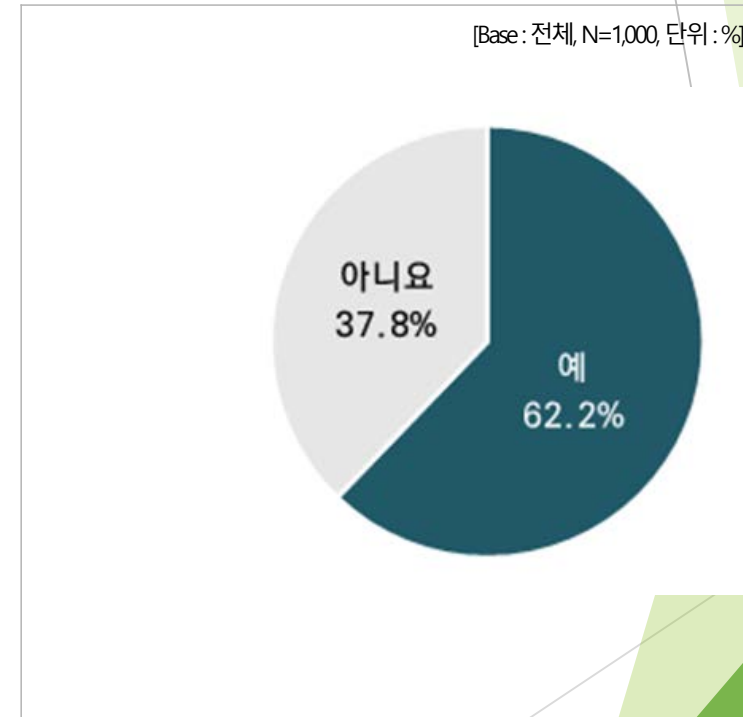
[Base: 식품 표시사항을 읽을 때 불편함을 느낀 응답자, N=532, 단위: %]



식품표시 개선방향

- ▶ 식품표시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예’가 62.2%로 과반이 넘는 응답률을 보임
- ▶ 식품 표시사항의 개선 방향
 - ‘핵심사항만 간결하고 잘 보이게 크기 조정’ 31.2%
 -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정보 표기’ (9.2%),
 - ‘동일한 위치에 공통된 규격으로 식품표시 정보 제공’ (6.1%),
 - ‘중요한 사항의 강조 표기’ (5.5%) 등의 순임

- ▶ 식품표시 전반적 개선의 필요 유무



식품표시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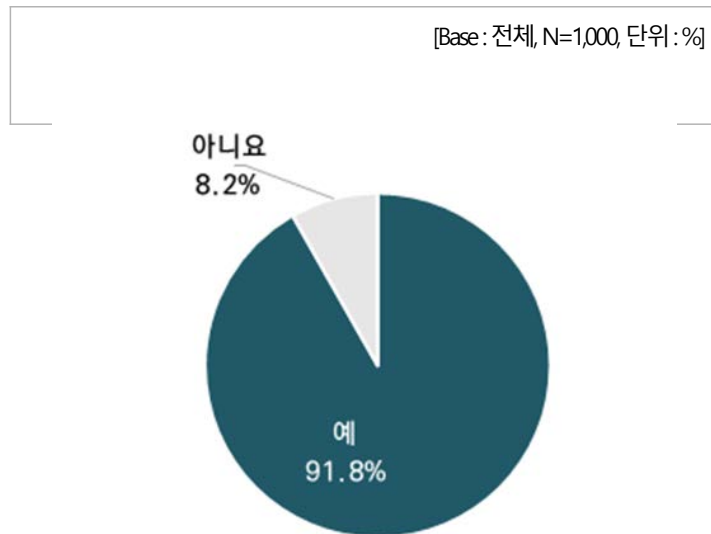
연번	내용	사례수	비중
1	핵심사항만 간결하고 잘 보이게 크기 조정	312	31.2
2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정보 표기	92	9.2
3	동일한 위치에 공통된 규격으로 식품표시 정보 제공	61	6.1
4	중요한 사항의 강조 표기	55	5.5
5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유전자변형제품, 원산지표기 등)	13	1.3
6	포장지에는 필수사항만 표시하고, 상세한 정보와 도움자료 등을 QR코드 통해 확인하도록	12	1.2
7	이해하기 쉬운 기호 및 마크를 제작 및 활용	11	1.1
8	알러지, 유해성분 등 건강에 직결되는 정보의 필수 표기 및 강조 표기	10	1.0
9	원재료와 식품첨가물을 구분하고 유의점 자세히 표기	8	0.8
10	식품표시 누락하지 않도록 함	7	0.7
11	칼로리 등 영양정보 표시 기준을 100g이 아닌 해당 제품 중량 기준으로 제시	7	0.7
12	과장 광고를 줄이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6	0.6
13	없음	5	0.5
14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구별하여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물량 축소	3	0.3
15	외국산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표기	3	0.3
16	별도의 첨부지로 식품표시 정보 제공	2	0.2
17	신선도 표기	2	0.2

기타 의견으로 구성 원료에 대한 유의점 표기, 다양한 조리방법을 제시, 시각장애인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점자 표기 추가, 식품의 효능도 표시, 신선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정보 표시, 안전식품에 부여하는 마크 도입, 영문 성분명을 한글로 변환 표기, 용량에 알맞은 포장, 정확한 GMO 표기, 제조자 정보 상세하게 표기, 포장지 자체 표기보다 구매처(마트 등) 매대에 성분 설명문 비치, 품목마다 성분 함유량 기준을 정하여 등급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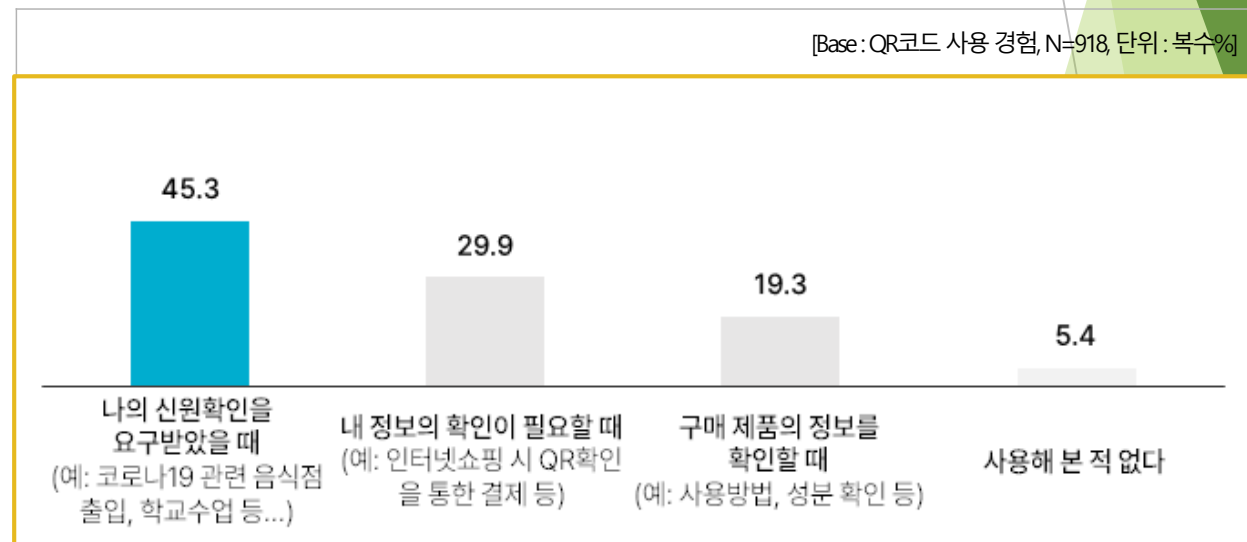
QR코드 사용경험

- ▶ 응답자 10명 중 9명이 QR코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91.8%)
- ▶ QR코드를 사용한 경험으로 ‘나의 신원확인을 요구받았을 때’ 가 4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 정보의 확인이 필요할 때’ (29.9%), ‘구매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때’ (19.3%) 순임

▶ ‘QR코드’ 인지 여부



▶ ‘QR코드’ 사용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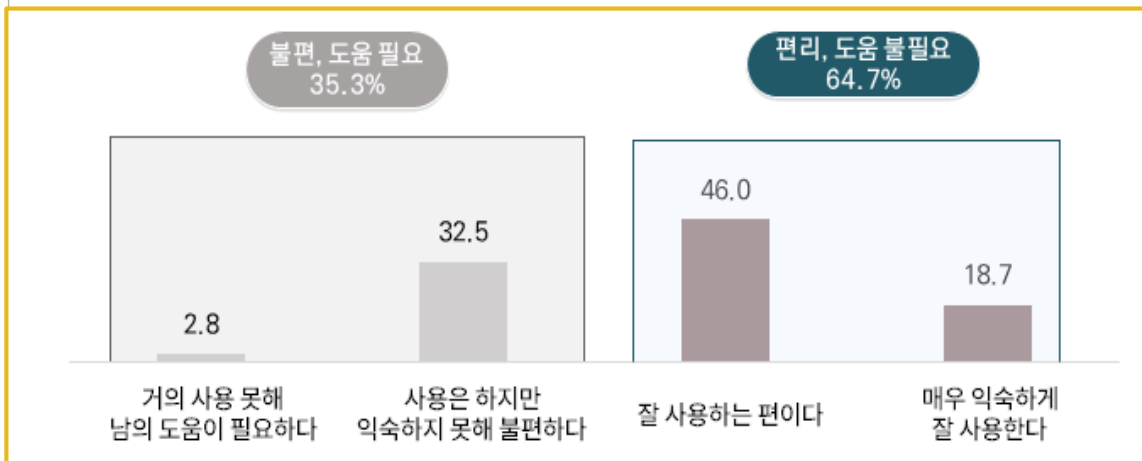


QR코드 사용 능숙도와 활용

- ▶ 응답자 10명 중 6명(64.7%)은 QR코드를 편리하게 잘 사용하여 도움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잘 사용하는 편이다’ 46.0% + ‘매우 익숙하게 잘 사용한다’ 18.7%)
- ▶ QR코드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명 중 8명(80.3%)은 식품표시 일부 내용을 QR코드 통해 확인 시 도움이 된다(‘식품표시를 확인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1.8% +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56.4%)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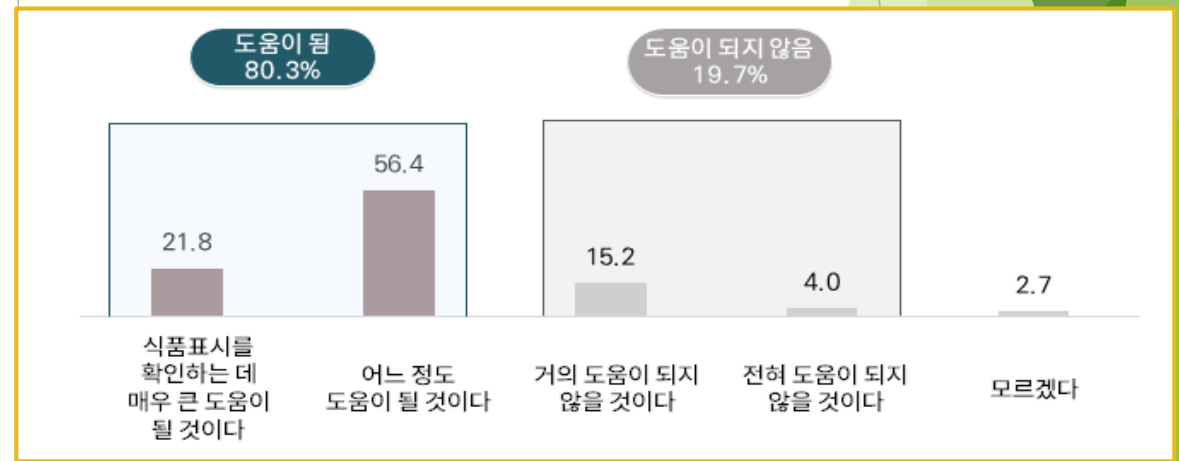
▶ ‘QR코드’ 사용의 능숙 정도

[Base: QR코드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N=85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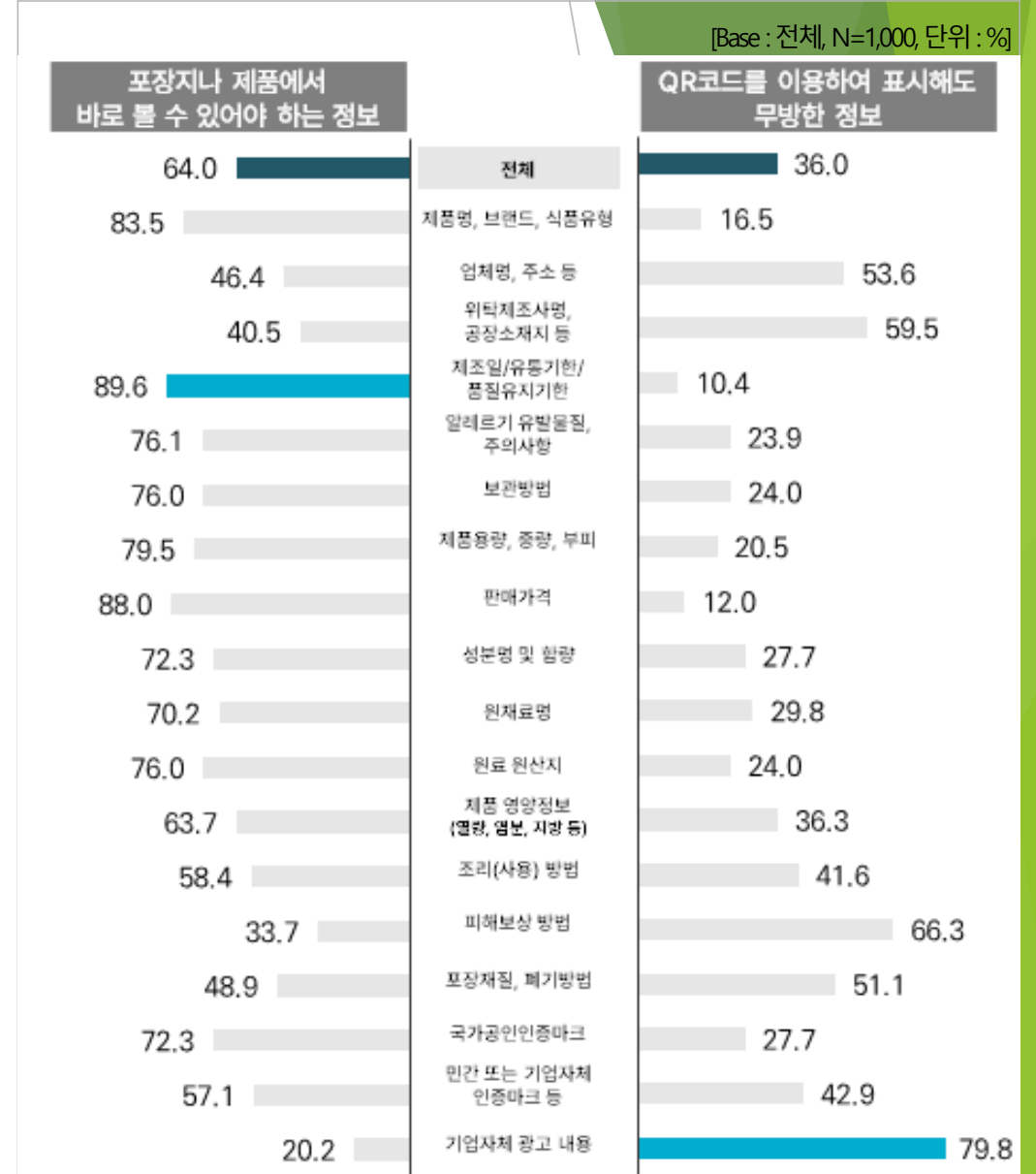
▶ 현행 식품표시 일부 내용을 ‘QR코드’ 통해 확인 시 도움 정도

[Base: QR코드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N=855, 단위: %]



QR코드에 넣을 수 있는 식품표시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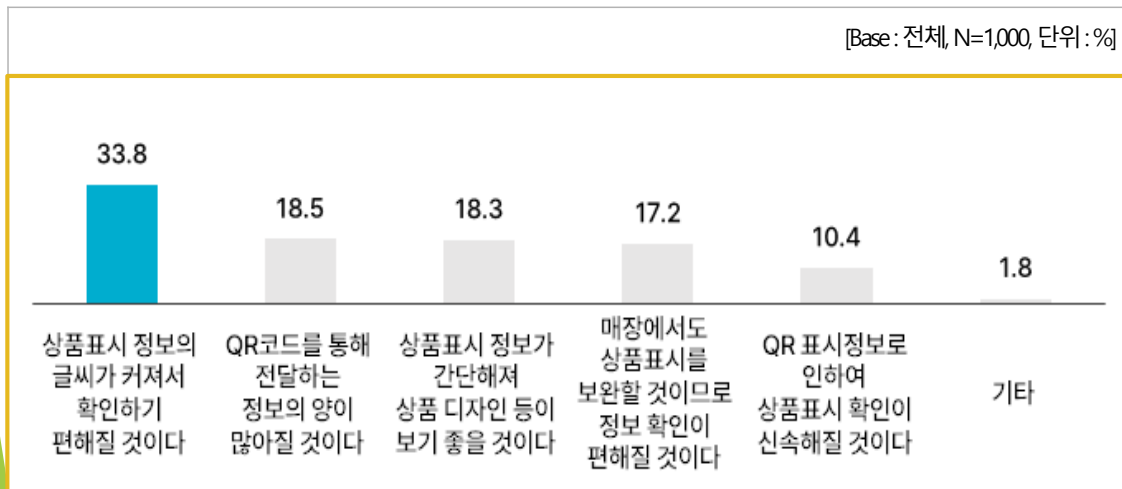
- 식품표시 정보 중 포장지나 제품에서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정보로 ‘제조일/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89.6%).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해도 무방한 정보로는 ‘기업자체 광고 내용’ 이 79.8%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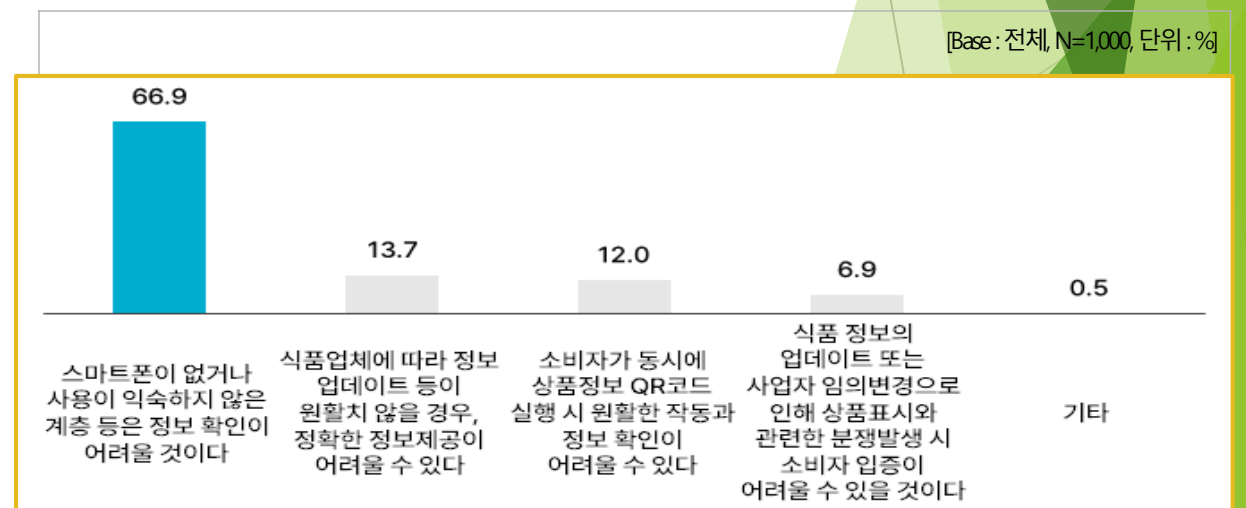
QR코드 활용시 기대효과, 우려사항

- ▶ 식품표시 일부를 QR코드로 대체 제공할 시 기대효과로 ‘상품표시 정보의 글씨가 커져서 확인하기 편해질 것이다’가 3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QR코드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질 것이다’ (18.5%), ‘상품표시 정보가 간단해져 상품 디자인 등이 보기 좋을 것이다’ (18.3%), ‘매장에서도 상품표시를 보완할 것이므로 정보 확인이 편해질 것이다’ (17.2%) 등의 순임
- ▶ 식품표시 일부를 QR코드로 대체 제공할 시 우려사항으로 응답자 10명 중 7명(66.9%)이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 등은 정보 확인이 어려울 것이다’를 꼽음

▶ 식품표시 일부를 ‘QR코드’로 대체 제공할 시 기대효과



▶ 식품표시 일부를 ‘QR코드’로 대체 제공할 시 우려사항



결론 및 제언

- ▶ **식품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평소 식품 구매[선택] 시 식품표시 중 ‘조리에 필요한 중요정보만 읽어보고 구매한다’ 가 48.6%로 가장 높았으며, 식품 표시정보를 별로 읽어보지 않는 이유로 ‘식품정보 표시 글자크기가 작고, 표시내용이 많아서 읽기 어려워서’ 가 47.6%로 가장 높았음
- ▶ **식품표시를 위한 공간확보 필요** : 현재의 식품표시 관련 사항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한다’ 3.3% + ‘만족하는 편이다’ 44.0%)이 47.3%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응답률이 45.1%로 나타남. 식품 표시사항을 읽을 때 불편함을 느낀 이유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들다’ 가 33.5%로 가장 높았음
- ▶ **QR코드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 병행필요** : QR코드나 바코드 등에 대부분 소비자들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응답자 10명 중 9명이 QR코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91.8%). QR코드를 사용한 경험으로 ‘나의 신원확인을 요구받았을 때’ 가 45.3%로 가장 높음. 35.3%에서는 QR코드를 전혀 또는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함

결론 및 제언

- ▶ 간결하고 명확한 식품표시 요구 : 식품 표시사항의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의견으로 ‘핵심사항만 간결하고 잘 보이게 크기 조정’ 이 3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정보 표기’ (9.2%), ‘동일한 위치에 공통된 규격으로 식품표시 정보 제공’ (6.1%), ‘중요한 사항의 강조 표기’ (5.5%) 등의 순임
- ▶ 중요 정보는 식품포장지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식품표시 정보 중 포장지나 제품에서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정보로 ‘제조일/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89.6%).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해도 무방한 정보로는 ‘기업자체 광고 내용’ 이 79.8%로 가장 높았음
- ▶ 디지털 정보망 사고 (재난상황)등에 대한 대비, 지하시설 등 QR접속이 잘 안되는 경우에 대한 보완대책 필요함

감사합니다!

